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서관

1977년 한국통신기술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은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IT)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지난 40여 년간 IT 산업의 기반이 되는 수많은 연구개발에 성과를 냄으로써 IT 불모지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IT 강국으로 도약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 대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ETRI 전자도서관 사이트 <http://library.etri.re.kr>

그 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TDx(전전자식교환기),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혁명을 이룩한 4M, 16M, 64M DRAM, 휴대폰 강국의 초석이 된 CDMA(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기술 상용화를 비롯해 내 손안의 TV를 실현시킨 지상파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술, 휴대 인터넷인 WiBro 기술 등 국가산업 발전을 이룩하는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최근 통신과 컴퓨터,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 등 기존의 기술과 산업, 서비스, 네트워크 등이 서로 융합하고 결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최고 Human Technology 리더'를 비전으로 인류가 보다 즐겁고,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신기술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서관은 국내 IT분야 전문정보센터로서 국내 최초로 온라인 정보검색 시스템과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IT분야에 특화된 전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도서관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은 물론 전문도서관의 발전 모델이 되어왔다.

사서 인터뷰



박계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서관

1. 현재 도서관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본인은 “전자도서관 운영” 사업의 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및 이의 일정과 실적관리는 물론 도서관 정책수립,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고가자료의 구매, 전자도서관 시스템 개발, 전자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이용자 교육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한 기술개발 등을 과제화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신하고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3. 최근 도서관에서 가진 행사나 활동이 있으신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연구과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유망 기술에 관한 시장전망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자료의 주요 수요자는 보직자(사업책임자 포함) 그룹이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에서는 고가 시장자료의 중복구입 방지, 공동된 정보수요의 취합구매, 보직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시장자료 제공 등의 노력을 통해 연간 수억 원의 예산절감, 정보공유 효과 증진, 연구부서간 정보격차 해소 등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12월 실시된 원내 혁신경진대회에서 혁신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서관만의 장점이나 특징?

우리 도서관은 설립 당시부터 행정부서나 전산실의 부분조직이 아닌 독립부서로서 별도의 연구과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8년까지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정보서비스팀 외에 IT 기술 및 시장동향의 대증전과를 위한 각종 분석서를 발간하는 정보조사분석팀, 그리고 IT 분야 전문 DB의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보유통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정보센터로서의 면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도서관 서비스가 연구원 중심의 기술자료 서비스에서 보직자 그룹을 위한 시장자료 서비스로 확장되어야 함을 알리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은 독립된 조직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도서관 업무의 고유성을 인정받아 여전히 독립된 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점을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으로 생각합니다. 전자도서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날로 다양성과 전문성, 고도화, 신속성을 요구하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무한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보기술 속에서 도서관 경영과 이용자 서비스의 가치증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 도서관은 매년 우리가 추구하는 발전 목표와 경영 효율화,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다

4.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전세계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 오늘날 전문도서관의 콘텐츠는 이미 50% 이상이 전자매체로 전환된 상태이며 우리 스스로 전자도서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서관의 얼굴은 서가가 있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로서 이의 이용을 통해 도서관의 많은 부분이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IT 기술이 인간의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한 지금, 과연 우리 도서관은 콘텐츠 외에 다른 부분에서 매년 어떻게 발전과 변화를 추구해 왔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걸맞게 우리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

지 않고도 연구실에 앉아서 전자도서관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서관 서비스에의 응용과 새로운 정보서비스 아이템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도서관은 콘텐츠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 정보서비스 능력, 이용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서의 업무실적, 이용자로부터의 도서관 평가 등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LAS나 ERM 등의 도입 운영에 그치지 말고 개개 전문도서관의 특성과 역량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5. 도서관의 역할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변화하게 될 사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0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도서관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정적인 환경에 익숙한 우리는 스스로 많이 변화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은 사서들이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콘텐츠의 관리 보다는 효율적인 활용에, 그리고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면에서의 경영혁신, 업무 능률화, 이용자 편의증진, 새로운 정보기술 등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6. 전문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도서관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모(母)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최근 모(母)기관은

기술 융·복합화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연구의 차별성과 생산성 요구, 경쟁적인 과제수주 등의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도서관은 소장 자료 중심의 전통적인 도서관 운영에서 벗어나 정보의 바다 속에서 자관(自館)의 연구분야에 특화된 콘텐츠 만들 엄선해 제공하고, 전통적인 기술자료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 그룹의 세분화와 그룹별 콘텐츠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도서관의 이용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정보활용 능력이 우수하므로 우리는 보다 고도의 정보탐색 능력과 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도서관은 업무영역 확장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전체 업무 중에서 도서관 즉, 정보 관련 업무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전문사서의 고유 업무영역이 인정되도록 해야만 전문도서관과 사서직이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7. 끝으로 KSLA Bulletin 독자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도서관은 지난 10년간도 묵묵히 노력해 왔으나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을 선도했던 과거의 명성을 아직은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회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전문도서관은 물론 사서의 입지가 한층 탄탄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전문도서관은 규모 면에서 격차가 심하므로 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대규모 도서관과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도서관과의 적극적인 교신을 위한 멘토링 제도 등을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전문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는 달리 “도서관”이라는 통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정보실, 정보관리실, 정보서비스팀, 지식정보팀, 기술정보센터 등과 같은 조직명칭을 사용해왔으며, 그 결과 “정보관리”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약화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고에서는 물론 사업계획서나 이용자와의 모든 교신에 조직명칭이 아닌 ‘도서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힙니다.